

■ 2026 아르코 건축예술랩 심의 총평

- 사업명 : 2026 아르코 건축예술랩 프로젝트 공모
- 회의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10:00~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희정, 박성태, 이진오, 임진영, 정이삭

건축 분야의 연구·비평·전시·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건축예술랩의 첫 공모에 총 89팀이 지원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관심의 표시를 넘어, 그간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던 건축 담론의 영역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보여준다.

심사 과정에서는 먼저 이 사업이 기존 프로그램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건축예술랩이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연구 성과물이 아니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 공동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연구의 마중물이다. 이에 따라 연구의 구체성과 연속 가능성, 현장 중심의 아카이브적 태도, 특히 그간 조명받지 못한 지역의 건축적 맥락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되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실행 역량을 균형 있게 판단하되, 기존 연구의 연장선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발굴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주제를 우선했으며, 선정 결과가 특정 경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선정작 외에도 건축 연구·비평·전시·아카이브 분야에서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신선한 주제와 소재들을 인상 깊게 보았으며, 이는 이 사업의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나무의 해체와 재구성: 목공업과 건축의 기록〉 (IN:tonix)

붕괴하고 있는 국내 목재 산업 생태계 - 생산, 유통, 소멸의 전 과정 - 를 군산, 인천, 부산의 현장을 중심으로 추적·기록하며 새로운 순환 모델을 제안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목재 산업의 현황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서 다시 사유하는 시각을 함께 제안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라져가는 산업의 풍경을 건축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새로운 담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경의 건축과 예술—스토어프론트에서 한국관까지〉 (TKP)

뉴욕 스토어프론트의 창립자 박경을 통해 1980년대 뉴욕의 건축 담론 생산 구조부터 APAP,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추적하며 건축 전시 실천의

한 계보를 연구한다. 한 기획자의 궤적이 뉴욕과 한국 사이의 건축 담론 흐름과 겹쳐지는 이 연구는 개인의 실천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읽어내는 방법론으로서 의미 있다. 건축 전시가 어떻게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실천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신선한 주제로 꼽혔다.

〈"텔"리올로지('Tel'eology)〉 (HYPERSPANDREL)

한국 오피스텔의 제도적 변천사를 추적하는 이 연구는, 건축 담론의 외부 -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건축 유형을 만들어왔는지를 질문한다. 오피스텔이라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유형을 통해 제도와 공간, 사회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려는 시각은 건축 비평의 시야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도다. 주제를 풍성하게 다룰 기획자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주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비공식 시방서: 시공자의 건축〉 (비공식 시방서)

한국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시방서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업이다. 시공자의 구술과 재료 표본 채집을 통해 설계와 시공 사이의 현실적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건축이 도면에서 현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 그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의 체계 - 을 가시화하려는 이 시도는 건축 아카이브가 주목해야 할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환기한다.

〈혼종의 정면(正面): 한국 전후 산업화 과도기 건축재료의 기록과 해석〉 (아뜰리에 作)

산업화 과도기의 건축재료를 추적함으로써 한 시기 한국 건축의 현실을 기록한다. 이른바 '집장사 집'을 구성했던 재료와 요소들은 특정 시대의 경제적·기술적 조건이 공간에 새겨진 흔적이며, 동시에 한국 건축 정체성의 한 단면이다.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건축을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이 작업이 열어낼 시야에 기대를 건다.

89팀의 지원은 건축 연구·비평·전시·아카이브 전반에 걸쳐 축적된 현장의 열망을 보여준다. 한정된 예산에서 과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보다 새로운 관점을 성실한 방식으로 선보이길 바라며, 선정된 다섯 팀의 작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깊어지기를,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넓고 지속적인 구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